



[한국일보 2010.4.30 기사]

[새책] 물의 시간 外**문학**

물들의 시간 정영선 지음.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소재로 한 장편소설. 황후의 죽음을, 폐경을 맞은 여성의 개인적 시간의 소멸이자 조선이라는 한 시대의 소멸이라는 중층적 의미로 그렸다. 산지니 · 298쪽 · 1만2,000원.

뽕벼랑 위의 사랑 차창룡 지음. 시인이 지난 3월 출가 직전 정리한 원고로 펴낸 다섯 번째 시집. 종교적 사유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일상성을 성찰하고, 자아와 욕망의 근원을 탐구했다. 민음사 · 112쪽 · 8,000원.

뽕뽕째르부르그로 가는 마지막 열차 정철훈 지음. 특유의 선 굵은 어법이 여전히 빛을 발하는 시인의 네 번째 시집. 한층 깊어지고 넓어진 관조의 눈길로 삶의 고독과 비애를 이야기한다. 창비 · 168쪽 · 7,000원.

뽕모반의 연애편지 김다은 지음. 84통의 편지로 이뤄진 서간체 소설. 후궁의 연애편지가 발단이 되어 세조의 왕위 찬탈의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는 과정을 다뤘다. 생각의나무 · 489쪽 · 1만3,500원.

뽕이 아침 축복처럼 꽃비가 장영희 지음. 저자의 1주기 유고집. 신문 연재 칼럼, 영미문학 에세이 중 미출간 원고를 추려 묶었다. 박완서, 이해인 등 지인들의 추모글을 덧붙였다. 샘터 · 312쪽 · 1만4,000원.

학술 · 교양

뽕캠핑 페인 김산환 지음. 집보다 텐트를 좋아하는 캠핑 고수가 캠핑의 매력을 사진과 에세이로 풀어냈다. 강원도 인제에서 제주 우도까지 전국의 자연을 배경으로 캠핑의 맛과 멋, 거기서 발견한 가족의 가치를 들려준다. 미래인 · 344쪽 · 1만3,000원.

뽕전후 일본의 보수와 표상 장인성 역음. 보수라는 키워드로 일본 사회를 분석했다. 문학과 영화, 만화의 서사구조와 혈연 이데올로기 등을 다룬다.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· 320쪽 · 1만5,000원.

뽕4천원 인생 안수찬 등 지음. '한겨레21'사회팀 기자들이 한달 간 감자탕집과 대형마트, 가구공장 등에 취업해 직접 경험한 노동현장의 이야기를 담았다. 한겨레출판 · 304쪽 · 1만2,000원.